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5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강원 건설 산업의 도약을 다짐하는 '2018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강원건설 스마트인프라 구축에 앞장”

강원 건설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약을 다짐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5일 원주 아모르컨벤션웨딩홀에서 '2018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올해 강원 건설의 도약과 화합을 위한 자리로, 각종 표창·감사패 전달식이 이뤄졌다.

지역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장관영 진성종합건설(주) 대표, 장명진 (주)원진 대표, 조경래 (주)신회종합건설 대표, 채창희 현진건설(주) 대표, 최돈왕 대왕토건(주)

건설협회 도회 신년인사회

공로 감사패·장학금 전달

대표는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박남웅 두성건설(주) 대표와 원홍상 선진종합건설(주) 대표에게는 협회장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회원사 자녀 및 도내 건설 관련 학과 대학생 등 총 26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오인철 회장은 “지속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

극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원 건설의 역량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박길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박재명 도 건설교통국장, 어명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황환민 강원지방조달청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과 강원 건설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윤중헌기자 jjong@kwnews.co.kr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오인철)는 5일 원주 아모르컨벤션 웨딩에서 건설협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